

설비 완료후 4개월 표류... 노조 결단만이 해법

기아차 62만대 증산 지역경제 살린다

심 왜 늦어지나

지난 14일 광주 서구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광주지역 기아차 협력업체 임직원 30여 명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이들은 장기 지연되고 있는 광주공장 증산 프로젝트를 노조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조속한 증산을 부탁드립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든 협력사 임직원들은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기아차 광주공장 증산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날 촉구행사에 참가한 H사 임원은 “이미 지난해 투자를 완료한 상황에서 증산 지연으로 설비를 마냥 놀리고만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 경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조 일정에 발목 증산협의 차일피일 협력사들 “더 미룰땐 경영 위기 봉착”

협력사들 “더 미룰땐 경영 위기 봉착”

표류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증산 프로젝트가 기아차의 고민을 넘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지난 2011년 기준 50만대인 광주공장의 생산능력을 62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실시됐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1공장에서 ‘올 뉴 카렌스’ 양산 ▲2공장 생산 46.1UPH(시간당 생산대수)에서 66UPH로 증산 ▲3공장 생산 23.1UPH에서 26UPH로 증산이다. 증산이 이뤄지면 광주공장은 연매출 10조를 돌파하게 되며 기아차 최대 공장인 화성공장과 규모가 맞먹게 된다. 기아차는 지난해 3월 1공장, 지난



지난 14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증산촉구 결의대회에 나선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출근하는 기아차 직원들에게 증산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9월 2공장 등 23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말 증산설비를 모두 완료했다. 공사를 위해 라인 가동을 멈춰 인기 차종인 스포티지R의 생산을 미뤘을 정도다. 계획대로라면 올 2월 본격 증산에 들어가야 하지만 노조가 증산의 발목을 잡았다. 증산의 핵심 사업장인 2공장 증산을 위해 노조와 UPH 조정 및 인원관련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노조일정으로 인한 협의 지연이 문제가 된 것이다.

기아차 5개 지회(소하리, 화성, 광주, 관매, 정비) 전체 대의원이 모이는 정기 대의원 대회가 지난해 11월 부터 올 2월까지 2개월이 넘게 진행된데다 지난 2월18일 열린 광주지회

정기대의원 대회도 전임 노조와 현 노조의 갈등으로 회기가 길어져 3월 말이 돼서야 겨우 종료됐다. 4월1일 시작된 노사 증산협의는 4차례가 진행됐지만 4월16일 발생한 사내 하청 조정 및 인원관련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노조일정으로 인한 협의 지연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노조의 자기증산적인 행보가 증산 프로젝트를 수 개월째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적체물량이 9만대에 이르는데도 준비된 생산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은 지역 경기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엔저 현상 등 자동차 산업 위기 속에 노조의 빠른 결단이 광주 자동차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백화점 전문에 캠핑을 체험할 수 있는 캠핑존을 설치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상의,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증산협의 조속 참여 촉구

광주상공회의소가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조속한 증산협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만 상근부회장은 15일 기아차 광주공장노동조합을 방문해 박병규 광주지회장을 만나고, 62만대 증산에 지연에 대한 지역여론과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 상근부회장은 “올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돌입예정인 지역경제에 걸렸던 기대가 매우 컸으나 증산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설비 투자를 마무리한 지역 내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하루속히 증산협의의 마

무리해 엔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62만대 증산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지역민과 지역경제계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재차 협조를 구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세청 간이과세자 위장탈세 대대적 단속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제상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무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로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일반과세자로 해당하는데도 간이과세자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위장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가산세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 1월 25일에 매출 확정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유형전환 신고 약 5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유형전환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는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연남뉴스

| | | | |
|-----------------|----------------|---------------|-------------------|
| ▲ 코스피지수 | ▲ 코스닥지수 | ▲ 금리 (국고채 3년) | ▲ 원·달러 환율 |
| 1971.26 (+2.43) | 565.65 (+5.18) | 2.56% (0.00) | 1,114.50원 (+7.90) |

전국 71개 상의회장 회의 18년만에 광주서 열린다

22일 광주상의 회의실

국내 14만 기업체를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가 18년 만에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홍석)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등 전국 71개 상의 회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오는 22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는 경기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상공회의소가 추진해오던 각종 현안사업과 향후 상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광주상의는 이 자리에서 광주의 발전사와 지역종합경제체로서의 광주상의 미래 비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에서 18년 만에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가 열린다”며 “광주가 수출주도형 생산도시에서 첨단 과학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창조도시 희망찬 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대우전자 다기능 복합 오븐 출시

동부대우전자가 웰빙 시장을 겨냥한 다기능 복합 오븐을 출시했다. 신제품 오븐은 홈 베이킹과 각종 요리 기능을 가미해 음식물을 튀길 수 있는 튀김기능까지 갖췄다.

신제품 ‘프라이어 오븐’은 동부대우전자가 특허 출원한 ‘튀김용 전용용기’를 별도로 추가한 것이 특징. 기존 제품의 경우 음식 전체에 열풍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 데 반해, ‘프라이어 오븐’은 튀김용 전용용기를 이용, 조리 음식에 250℃의 열풍을 상하 좌우에서 동시에 달게 해 바삭한 튀김요리를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

별도 전용용기를 사용, 세척이 쉬우며 오븐 내부를 정기로 청소할 수 있는 스틱청소 기능도 채용하는 등 위생에도 신경을 썼다.

동부대우전자는 프라이어 오븐 출시 기념으로 6월 초까지 직접 프라이어 오븐으로 조리하는 ‘내가 요리사’,

웰빙 튀김요리의 맛을 직접 체험하는 ‘맛 대결 블라인드 테스트’, 등 이벤트를 할인점 및 양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복합 오븐의 용량은 24ℓ이며 출고가는 33만9000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LH 전남지역 비축토지 18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전남지역 비축토지 9건(18필지)을 3년 무이자할부조건으로 공급한다.

경정 입찰방식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LH가 부동산시장 수급조절 및 향후 공적 개발수요에 대비, 전략적으로 매입한 비축용 토지들로,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가 대부분이다.

공급하는 토지에는 영암 대불국가

산단 배후주거단인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이 포함돼 주택건설업체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또 장성 삼계 2필지, 담양 무정 1필지, 고흥 과역 2필지, 무안 일로 8필지(1건) 등이다. 공급토지는 21일 경정입찰 신청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할 후 24일 계약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찰은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으로만 가능하다. 문의(062-360-3313).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특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차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 | |
|---------------|------------------------------------|
| 년 480만(예상수익) |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
| 년 960만(예상수익) |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
| 년 1440만(예상수익) |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

*인중서 판매가격:입찰물동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TEL.1577-8905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 019-624-2371